

클린스만 감독의 '무색무취' 전술...독일 꺾은 일본과 비교

부임 5경기째 무승...13일 사우디와 9월 마지막 평가전
일본, 독일 원정서 압도적 경기력 자랑 '전차군단 킬러'

클린스만호가 무색무취 전술로 출항 후 5경기째 승리가 없는 가운데 일본은 강호 독일을 대파하며 세계 축구의 중심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축구대표팀은 10일(한국시간) 독일 불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아레나에서 치러진 독일과의 9월 A매치 친선경기에서 4-1 완승을 거뒀다.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독일을 2-1로 이겼던 일본은 약 10개월 만의 리턴매치에서 또 승리하며 '전차군단 킬러'로 자리매김했다.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독일은 그사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15위로 추락했고, 일본은 20위다.

특히나 일본은 독일 원정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자랑하며 월드컵 때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다.

일본의 독일전 승리는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3무2패로 승리가 없는 클린스만호와 비교된다.

올해 3월 한국 사령탑 지휘봉을 잡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각종 논란 속에 경기력까지 부진하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3월과 6월 국내에서 열린 4차례 A매치에서 승리가 없던 클린스만호는 지난 8일 영국 웨일스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일스와의 평가전에서도 무기력한 경기력 끝에 0-0로 비겼다.

김승규(알사범) 골키퍼의 선방과 골대 행운이 아니었다면, 패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1992년 A대표팀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이래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사령탑은 클린스만이 처음이다.

더 심각한 건 내용이다. 현역 시절 세계적인 골잡이로 명성을 떨친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공격 축구를 선언하며 최전방에 스트라이커 두 명을 배치한 4-4-2 포메이션을 기본 전술로 가동했다.

황의조(노리치시티), 조규성(미트윌란) 등 타깃형 스트라이커를 높은 위치에 두고 손흥민(토트넘)을 함께 배치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프리롤'을 맡긴다.

또 빌드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벤투호 시절과 달리 좌우 풀백이 좀 더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에 가담한다.

하지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선수 배치로 전술적인 운용에 의구심을 받는다.

웨일스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중앙 성향이 강한 흥현석(헨트)을 사이드에 배치해 부상으로 이번 소집에 제외된 이강인(파리생제르맹) 역할을 맡겼다. 또 소속팀 프로축구 K리그 1 수원 삼성에서 포백보다 스리백에 익숙한 이기제를 왼쪽 풀백에 배치했다.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한국은 손흥민의 개인 능력에 의한 돌파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수비도 조직적인 압박보단, 기초군사훈련으로 지난 6월 소집에 제외됐다가 돌아온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혼자 힘으로 커버하는 느낌이 강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국내에 머물렀다던 약속을 깨고 부임 후 해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손흥민 등 유럽과 점점이란 명분을 세웠지만, 웨일스전 경기 운영을 볼 때 이것마저도 의구심이 든다.

벤투 전 감독도 지나치게 빌드업에 의존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는 13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을 앞두고 8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 카디프 인터내셔널 스포츠험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비판을 받았지만,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철학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아직 무엇을 하려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국은 오는 13일 오전 1시30분 영국 뉴캐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9월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최근 이탈리아 출신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사우디는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우승을 다툰 경쟁자다. FIFA 랭킹은 한국(28위)보다 낮은 54위다.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려면, 무엇보다 결과가 중요한 매치다.

KIA 이의리, 손가락 물집으로 1군 엔트리 제외 한 차례 선발 로테이션 거른 뒤 복귀 할 전망



KIA 타이거즈의 좌완 영건 이의리(21)가 손가락 물집 탓에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KIA는 1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서 벌어지는 2023 신한은행 솔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의리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대신 이날 선발로 등판하는 김건국을 등록했다.

이의리는 지난 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LG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 선발 등판했으나 손가락 물집 때문에 5이닝을 채우지 못했다. 5회초 선두타자 김현수를 삼진 처리한 이의리는 왼손 손가락 물집이 벗겨지면서 김대유로 교체됐다.

지난달 22일 수원 KT 위즈전에서 어깨 통증을 느낀 이의리는 다음 날 병원 검진에서 단순 염증 진단을 받아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치료를 마치고 이달 3일 복귀한 이의리는 3일 SSG 랜더스전에 이어 전날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지만,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면서 또 쉬어가게 됐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 이의리는 한 차례 선발 로테이션을 거른 뒤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의리는 올 시즌 23경기에 등판해 10승 6패 평균자책점 4.19를 기록했다.

이슬비기자

女배구 신인 최대어 김세빈, 디펜딩챔프 도로공사 합류

프로배구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 김세빈(한봉고)이 지난 시즌 우승팀인 한국도로공사에 합류했다.

김세빈은 10일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 메이필드 볼룸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도로공사의 선택을 받았다.

김세빈은 지난해 전국대회 5관왕에 오른 한봉고의 주전 미들블로커다. 우승을 이끈 에이스 김세빈은 지난 3월 끝난 2023 춘계 전국중·고배구연맹전 여고부에서도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김세빈은 여자 U18 대표팀과 U20 대표팀에 모두 선발돼 국가대표로 뛰었고 아시아 여자 U18배구선수권대회에서는 베스트 미들블로커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세빈은 부모로부터 신체 조건과 배구 감각을 물려받았다. 김세빈의 부친은 전 한국전력 감독인 김철수, 모친은 1990년대 한일합섬



에서 활약한 김남순이다.

당초 김세빈은 지난 시즌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으로 갈 가능성이 컸지만 페퍼는 도로공사에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겼다. 페퍼는 보효선수 지정 실수로 주전 세터 이고은을 도로공사에 뺀 뒤 이고은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1라운드 지명권을 내줘야 했다.

1라운드에서 정관장은 일신여상 출신으로 아포짓스파이커와 아웃사이드히터를 소화하는 곽선욱을 지명했다. IBK기업은행은 근영여고 아웃사이드히터 전수민, GS칼텍스는 중앙여고 세터 이윤신과 체전여고 리베로 유가람, 현대건설은 한봉고 세터 최서현, 도로공사는 선명여고 아포짓 신은지를 지명했다.



역도 박주호, 세계선수권 남자 73kg급 용상 은메달

박주호(고양시청)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 용상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박주호는 10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3 세계역도선수권 남자 73kg급에서 인상 143kg, 용상 187kg, 합계 330kg을 들었다.

인상에서 17위에 그친 박주호는 용상에서 2위에 올랐다.

합계에서는 9위로 입상에 실패했다.

역도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합계만 메달을 수여하지만, 세계선수권에서는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모두 메달을 준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에 실패한 박주호는 올해 리야드 대회에선 첫 세계선수권 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선수단에선 남자 67kg급 용상에서 동메달을 딴 이상연(수원시청)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체급에선 태국의 위라폰 위차마가 인상 154kg, 용상 195kg, 합계 349kg로 종합 우승했다.

한편 세계선수권을 마친 박주호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서승재-채유정, 이용대-이효정 이후 14년 만 중국오픈배드민턴 혼복 우승

배드민턴 혼합 복식 세계 5위 서승재-채유정 조가 2023 중국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우승을 달성했다. 이용대-이효정 이후 14년 만의 대회 우승이다.

서승재-채유정은 10일(한국시간) 중국 창저우에서 열린 대회 혼합 복식 결승에서 세계 8위 톰 지켈-텔린 델루 조(프랑스)를 2-0(21-19 21-12)으로 이기고 우승했다.

이로써 서승재-채유정은 지난달 덴마크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성공했다.

아울러 서승재-채유정은 2009년 이용대-이

효정 이후 14년 만에 중국오픈 혼합 복식 우승을 달성했다.

1게임 7-5에서 채유정이 톰 지켈의 푸시 공격 때 얼굴에 셔플콕을 맞으면서 우려를 낳았지만 부상으로 이어지는 않았다.

19-19 동점에서 채유정의 대각선 스매시가 상대 코트에 꽂혀 한국이 게임 포인트에 도달했다. 톰 지켈의 리턴이 밖으로 나가며 서승재-채유정이 1게임을 따냈다.

2게임 초반부터 크게 앞서 나간 서승재-채유정은 상대 실수에 힘입어 더블스코어까지 달아났고 여유 있게 우승을 달성했다.



전남 복싱선수단, 대통령배 대회서 '메달 잔치'

전남 복싱선수단이 전국 시·도 복싱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수확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남복싱협회(회장직무대행 박규관)는 최근 전남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열린 '제53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 참가한 전남 선수단이 금·은·동 4 등 총 1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금메달은 '복싱메카' 화순군 출신들이 휩쓸었다.

장동영(전남기술과학고 3년)은 남고부 -92kg급에 출전해 신울(인천체육고)을 꺾고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이현호(충주공업고)를 압도하며 레프리 스톱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민성(화순군체육회)은 남일부 60kg급에 출전 최도현(인천광역시청)과 박승민(광주시청)을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김원호(영주시청)에 5:0 판정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기술과학고' 출신 서동근, 김중원(이상

한국체육대)는 각각 -57kg급과 -86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복싱 꿈나무들의 활약도 빛났다.

중등부에서는 임유빈(전남체중 3년, -52kg급), 차태영(전남체중 2년, -54kg급), 추도윤(화순중 2년, -81kg급)에서 은메달, 이수현(전남체중 2년, -63kg급)은 동메달을

고등부에서는 전남기술과학고 최준원(11년)과 김성민(2년)이 -51kg급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고, 이창록(전남체중 3년, -54kg급)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학부에서도 전남기술과학고 출신 임형욱(한국체육대 2년)이 남대부 -80kg급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일반부에서는 박수인(화순군청)과 박건(화순군체육회), 김종진(목포시청)이 각각 남일부 -67kg급과 -71kg급, -92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여일부에서는 강에니칼네이로(화순군체육회)가 -60kg급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